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5월 24일 (제79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사랑한다면 말겨라

코스타리카 집회 때 차량을 제공하며 도왔던 에바 집사가 파나마 집회에 찾아왔다.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아침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그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랑한다면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한다. 남미 문화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재산을 분할 관리한다는데, 나는 남미 문화나 한국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려 한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다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재산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라고 나를 통해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는 모르나 에바가 나를 도와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기에 하나님께서 불행을 미연에 방지해주시려는 뜻도 있겠고, 아니면 깨닫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게 하시려는 뜻일 수도 있다.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해볼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전 재산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들이 내 말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에 처방대로 약을 먹는 자가 있는가 하면 먹지 않는 자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내 말은 사실이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 하늘과 땅, 땅 아래 권세를 위임하셨고(마28:18),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는 내 양을 먹이라고 일체 위임하시지 않았는가(요21:17)?

내가 어떻게 1년에 반 이상을 교회를 비우고 해외집회를 다닐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 사랑하는 나의 직분자들에게 믿고 맡기기 때문이다.

사랑은 현상으로 나타나야 한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고 싶은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자를 활용하는 것이 지혜다

“부지를 구입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를 건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준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렇게 성전건축 감사예배 및 입당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지난 5월 19일에 있었던 이천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에서 담임인 정재일 목사의 진심어린 고백이다.

많은 지교회 목회자 및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된 이천교회 입당예배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예배에 앞서 정재일 목사의 양친을 단으로 불러올려 오늘의 정재일 목사가 있기까지의 모든 공을 두 분께 돌

로 하려고 하면 허리만 다칩니다. 그럴 때 지렛대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되듯, 영향력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것은 지렛대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노쇠하자 밋세바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자 서두르는데, 여기서 밋세바는 다윗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단 선지자의 힘을 빌립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을 찾아가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계문제를 매듭짓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한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훼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도한 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전 캐나다 밴쿠버에서 집회를 마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마10:16)’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뱀에 대해 연구했더니, 뱀은 속이 있으나 없는 듯 행동하고, 아름다우며, 소리 내지 않고, 먹이를 잡을 때 사력을 다하며, 해마다 허물을 벗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기에 충분합니다. 자신의 것을 다 발설하지 않는 지혜요(잠25:2),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므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지혜요, 일을 도모함에 있어 다투지 않는 것이 지혜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이며, 자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



이천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2015. 5. 19)

렸다. 이어 이천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아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잠언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공간에 채우게 하려함이나니’. 이 말씀을 앞 절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여기서 ‘나’란 지혜를 말합니다. 곧 지혜로운 자는 공간에 재물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知慧)란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을 말합니다. 즉 이는 분별력이요, 통찰력입니다. 고로 사물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며, 만물에 통찰력을 가진 자는 공간이 풍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지혜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영향력 있는 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으

고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청을 받아들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승낙할 뿐 아니라 전적인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밤불이 여러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편이 낫습니다. 그 나라나 그 지역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돕는 것이 일을 쉽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재일 목사를 비롯한 지교회 목사들이 그 지역의 영향력 있는 자들을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낮추면 좋은 소문이 입소문으로 퍼져 그들이 돕게 될 것이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입니다. 이 지혜를 생활화하면 인정받는 성도요, 가고 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12절에는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명철(明哲)은 사리나 도리에 밝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명철이 지혜의 바탕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리나 도리에 밝은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고, 그것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나는 정재일 목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간에 곡식이 풍성하듯 이천교회에 성도가 날로 늘어갈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지혜로 이천교회는 물론 예수중심교단의 모든 교회 공간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한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당신의 한 통화가 세계를 복음화 한다!

ARS 060-700-0688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2:1~11)



물은 100°C라야 끓는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과학 선생님께 배운 기본 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팔팔 끓기 전까진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다가 100도에 이르면 기포와 함께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크게 변화되는 지점이 바로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물의 임계점이 100도인 셈입니다.

신앙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기사의 현장인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저 분이 뭐라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명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운 후 연회장에 내어가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잔치가 더욱 흥겨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우리 믿음의 임계점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아구까지 차야 응답이 온다는 것이고, 아구까지 채우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자기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온다며 '기도해봤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기도가 임계점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도 99도까지는 끓지 않듯,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께 인사나 하는 정도의 기도, 했다 안했다 하는 들쭉날쭉 기도로는 임계점에 다다를

다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테니 걱정 말라' 하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출14:15)라고 하시고는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 군대는 수몰시켰습니다.

르호보암의 손자로 유대의 6대왕인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여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백만의 구스 군대가 쳐들어 왔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겨우 삼십만 정도인데 말입니다. 그



총회장 이초석 목사

때 아사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

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대하14:11).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스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주부님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빨리 끓으려면 센 불이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기도의 임계점에 다다르는 길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한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옛새 동안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며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레째 여섯 바퀴를 다 돌았건만 성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겨우 한 바퀴 남았으니 금이라도 가야 믿을 수 있는데 여전

했습니다. 그러나 일곱 바퀴째 성을 돌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임계점을 넘은 것입니다. 99도에서는 물이 안 끓는다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할까요? 그는 포로로 잡혀온 여종으로부터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아람 왕의 소개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방문합니다(왕하5:2~6). 나아만 장군을 맞은 이스라엘 왕은 이를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방문으로 여겨 옷을 찢으며 걱정을 합니다. 이런 내막을 들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사자를 보내 요단

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합니다. 이 말에

나아만 장군은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나 몸종의 권면에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을 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섯 번 들어갔다 나오면 허물이라도 벗겨졌어야 웅습니다만 그의 문둥병은 여전했습니다. 반신반의 하면서 일곱 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 몸이 어린 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왕하5:1~14). 임계점이 넘으면 더러운 것이 위에 뜨듯 그제야 나아만 장군의 불신도 사라졌습니다.

순종의 임계점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1:20).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 아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나 신앙에 이런 임계점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학교에서도 커트라인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커트라인을 통과해야 진학

을 할 수 있고,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커트라인을 만든 것은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만큼은 공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당신 스스로 법을 만드시고, 그 법에 의해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분은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정도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천국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신앙의 임계점을 만들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많

믿음에도 커트라인이 있다

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무엇입니까? 오해(誤解)란 잘못 풀었다는 뜻입니다. 곧 이는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착각(錯覺)은 오해와 동색으로 실제와 다르게 느끼고 지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오해하는 자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신앙의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한 당신 책임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온도계, 시계바늘 같은 분입니다. 정확무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회개해야 천국에 간다, 심은 대로 거둔다' 등 임계점을 두고 임계점이 넘을 때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지금 응답이 안 와서 낙담하고 있습니까? 아직 98도라서 그런 겁니다. 2도만 높이면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임계점은 있습니다. 바로 성공의 임계점입니다. '1만 시간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선 전문적 훈련을 1만 시간 거쳐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물이 100도가 돼야 끓듯, 훈련이 1만 시간을 넘어야 비로소 재능이 꽃을 피운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면 성공의 임계점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겨 스케이트로 세계 최고가 된 김연아 선수의 노력과 훈련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노력하는데 게으르지 마시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99도까지도 물은 끓지 않는다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야 기도가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이 끓으면 거품 같은 것이 뜨지 않습니까?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야 더러운 것들, 곧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과 교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끓일 때 불을 켜다 켜다 해보세요. 절대 물이 안 끓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임계점에 빨리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셨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2~3).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센 불로 끓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는데, 변심한 바로가 군사를 보내어 바로 추격해왔습니다. 설상가상,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있었습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나의 진정한 행복은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 얻을 수 있다. 나의 주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나 혼자 행복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 하자. 그것이 나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 돈으로 가난한 형제나 이웃을 돕는 등,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 돈은 분명히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다른 일에는 돈이 아까워서 절절 때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챙겨 먹는 사람을 보았다. 자신의 건강한 육체가 그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건강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있다. 바로 그 건강을 나누는 것이다. 건강한 몸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의 건강을 위한 수고가 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어려움 속에서도 남모르게 구제하거나 남을 도우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 느끼는 기쁨과 행복은 말할 수 없다. 작아도 자기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기쁨이 부메랑이 되어 내 속의 넘치는 기쁨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주일 예배 영상 중에도 파나마 후한 카를로스 대통령이 목사님과 대화중에 백성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시대 목사

불행은 내가 움켜쥔 때 슬며시 나를 찾아와 나를 지배하게 되는데, 나만 부자로, 나만 건강하게, 나만 멋지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움켜쥐므로 인해 나의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여 불행해지는데, 그것이 나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나도 함께 불편하고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 속에서 행복한 척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위장된 행복이다.

행복을 만들기 원하면 나눠보라. 돈도, 건강도, 사랑도, 믿음도, 따뜻함도.... 좋은 것들을 주라. 그것이 결국은 내 주변을 훈훈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그것은 나의 환경이 되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부모님께,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목사님께, 성도들에게,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눠보라. 내가 먼저 주기 시작하면 당신은 분명 행복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먼저 주라. 그래서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니고 1년 내내 가정의 달이 되게 해보라.

아무쪼록 우리 성도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7:12).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찌니라”(행20:35).

식탁에서 대화하자!

영국의 에드워드 7세는 식사에법에 몹시 엄격한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왕을 비롯한 왕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크 왕자가 자꾸 뭔가 말을 하려고 머뭇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왕자들은 긴장했습니다. 식사 중에 말을 하면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요크 왕자가 계속 ‘저, 저...’ 하자 에드워드 7세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식사 중에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 그 말에 요크 왕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에드워드 7세는 아까 요크 왕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해서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니?”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늦다니?”

“아까 할아버지 음식에 별레가 들어갔었어요.”

당신 가정의 식탁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저 조용히 밥만 먹고 일어납니까? 말없이 밥만 먹는 것이 식사예절은 아닙니다. 뭔가를 먹을 때 사람들의 맘이 제일 잘 열린다고 하네요. 따로 시간을 낼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별로 없으니 식사 때만이라도 가족과 담소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있었니?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런 이야기도 좋고요. ‘옛날 아빠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요즘은 애들도 너무 바빠서 같이 식탁에 앉기 어렵습니다. 이럴 땐 날을 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주말에는 다 식사하는 날,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요즘 사고치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가정에서 따뜻함과 바름과 옳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일부러 시간 따로 내지 말고 식탁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중심편집실



::하나님 편에 서는 삶::

반전드라마 같은 삶

지난 5월 3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무패신화로 유명한 미국의 메이웨더 선수와 8체급을 석권한 필리핀의 매니 파퀴아오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대전료만 2억 5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750억 원에 달하는 이 경기의 결과는 메이웨더의 판정승으로 끝이 났지만, 여기서 우리는 파퀴아오의 인생과 신앙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에서 대통령보다 좋은 예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파퀴아오의 인생이 처음부터 대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골마을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흠어머니와 많은 형제들과 함께 지냈던 그는 길거리를 전전하며 뜨거운 태양아래의 좌판에서 도넛이나 담배 같은 물건들을 팔며 지내는 거리의 아이였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빈곤과 싸운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서는 매일 이른 새벽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는 그 시절에 “우리가 자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라는 물음을 마음에 품었다고 합니다. 5살 때부터 바닷가와 길

거리를 전전하며 일을 했던 소년은 초등학교 6학년을 중퇴하고 복싱을 접하게 됩니다. 얌전한 삼촌에게 처음 복싱을 배웠고, 동네 공원에서 스파링도 벌였습니다. 복싱에 재능을 보였던 그는 금방 두각을 드러냈고 나름 대전료도 받았습니다. 그의 첫 대전료는 단돈 1달러였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파퀴아오는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수도인 마닐라로 상경합니다. 지독한 가난을 이기기 위해 13살의 그 소년은 복싱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에 기적 같은 역전극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링에서 먹고 자며 복싱을 연마한 그는 프로 데뷔를 치르기가 무섭게 연승가도를 달립니다. 그는 참가하는 대회마다 우승을 거머쥐었고, 전 세계 챔피언 복서들과 경기를 하면 기죽기는커녕 대단한 명성을 가진 그들을 링 위에 눕히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그는 8체급에서 챔피언벨트를 거머쥐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는 권투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활동하고 있고, 부와 권력을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기적적인 역전승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복서가 되기 전, 길에서 자고 굶주렸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복서는 직업에 불과하며, 대전료로 버는 천문학적인 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계속 힘을 쓸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삶도 처음엔 아주 미약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으며,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흑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미약한 자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훈련의 기간을 지나고 계신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하나님이 쓰실 그릇을 만드시느라 다듬질의 기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철학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내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쓰러지지 말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반전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기적적으로 다시 나를 일으키실 그 날을 기대하며!

김경현

kyunghyunjudy.kim@gmail.com



귀를 기울이세요

지난주일, 우리는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의 파나마 집회를 영상으로 접했습니다. 8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의 영적 아버지로 불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50년째 목회를 이어가고 계신 마누엘(Manuel) 목사님과, 사상 초위로 개신교 목사를 궁에 초청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받은 후안 카를로스(Juan Carlos) 대통령을 영상으로 만나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고, 우리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끝부분에 목사님께서 집회를 마치고 성전을 나가실 때, 눈 주위와 팔이 발갈색이 변한 피부병에 걸린 성도 한 분이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보기만 해도 눈살을 찌푸리고 주춤하게 될 법한 그 분의 얼굴과 팔을 목사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쓰다듬어 주셨고, 안수하여 귀신을 쫓으시고 기도해주시는 겁니다.

문득 아주 오래 전, 제가 아직 우리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목사님의 해외집회 영상을 보면서 ‘이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때 목사님은 온 몸에 수포가 난 채 안수 받으러 온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안아 주셨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변함없이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선한 목자는 과연 어떠한가 하는지 다시금 깊이 묵상해봅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이천교회 담임 정재일 목사



이천예수중심교회 전경

지난 19일 입당예배를 마친
이천예수중심교회 담임
정재일 목사를 만났다

기자: 아름다운 교회를 헌당하심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목회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어떻게 해서 주의 종 길을 가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정 목사: 2001년 5월 4일에 목사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한지 14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으나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셔서 순종함으로 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자: 이천교회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완공하기까지의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도움을 주신 분께도 이번 기회에 인사를 하시면 좋겠네요.

정 목사: 이천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여 첫 주일예배를 2001년 6월 3일에 드렸습니다. 이번 성전을 완공하기까지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전 부지를 매입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관련 지식도 부족한 사람이 교회 건축을 직접 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특히 교회 사정으로 겨울에 공사를 해서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교회 건축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누구보다 총회장 목사님의 격려와 기도의 힘이 컸습니다. 또한 직접 찾아오셔서 격려해주신 이석실 행정목사님과 누구보다 수고해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봉사해주신 지교회 목사님들과 서울과 인천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해주신 집사님, 대구에서 올라와 봉사해준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움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뿐입니다.

기자: 새로 지은 교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정 목사: 대지 500평 중 300평을 전용허가 받아서 1층 55평, 2층 55평 합계 110평 규모로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1층에는 원로 2개, 교육관, 목양실, 교회사무실, 남녀화장실을 갖추었습니다. 2층에는 예배당과 자모실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규모는 작지만 아담하고 실용성 있게 건축하였습니다.

기자: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요?

정 목사: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아직 먼 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중 하나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사랑(희생)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목회에 있어서 사랑(희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양떼를 사랑하고 못 영혼을 사랑한 이 여기 잠들다.'

기자: 총회장 목사님께 평소 드리고픈 말씀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주세요

정 목사: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을 만나서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은혜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가며 쓰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님의 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픈 마음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기자: 이천교회와 목사님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정 목사: 이천교회의 비전과 목표는 '구제와 선교를 통한 영혼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천교회의 표어가 말해주듯이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내와 국외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키우며 후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흥사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본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교회와 기도원 등을 다니며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나타내심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하고,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후진들을 양성하는 사역도 하고 싶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기자: 신영서

jesus7857@gmail.com

“대충”

사람의 생각 속에는 아주 고약한 벌레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이 벌레 때문에 꿈과 목표가 실패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같은 벌레는 약으로 잡을 수 있지만 이 벌레는 약으로도 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 날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이 벌레의 이름은 바로 “대충”입니다. 사람들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충 생각하고, 대충 계획을 세우고, 대충 노력하고, 대충 대충하다 결국 낙심하고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생각과 목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만이 성공의 핵심 비결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적당히 대충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바느질을 대충하면 구멍이 숭숭 뚫린 옷이 되는 것처럼 인생을 대충 살면 대충 인생이 됩니다. 열정과 최선을 성장의 진정한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꿈꾸는 것을 기록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공과 성취'라는 크나큰 열매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인도 속담에 '참된 위대함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보다 한걸음 앞서가는 데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과의 경쟁과 비교는 자칫 파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경쟁은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남이 아닌 어제의 나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듯 우리의 존재 이유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아닐까요?

근검절약은 미덕이다

::Edu Section::

IMF 구제금융 위기를 벗어난 지 겨우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나라 빛이 세계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시절을 살고 있다. 언론에서는 연일 경기가 침체되고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으며 미래 경제는 불확실하다고 떠들어댄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가 이런 각박한 시기를 살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절약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

수업이 끝난 후 교실을 청소하다보면, 멀쩡한 지우개와 연필, 샤프, 볼펜을 놓고 가는 경우가 수도북하다. 새 것이나 다름없는 공책과 책도 두고 간다. 어떨 때는 옷과 가방까지도 버려두고 간다. 두고 간 물건을 행여나 찾을까 보관을 해주지만, 다음 시간에 자기 물건을 챙겨가는 아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필요하다면 다시 사면 그만이다.

다. 잊어버린 물건 따위에 관심이 없다. 가정교육의 부재인지, 아님 넉넉한 환경 때문인지,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도 없고 아까운 것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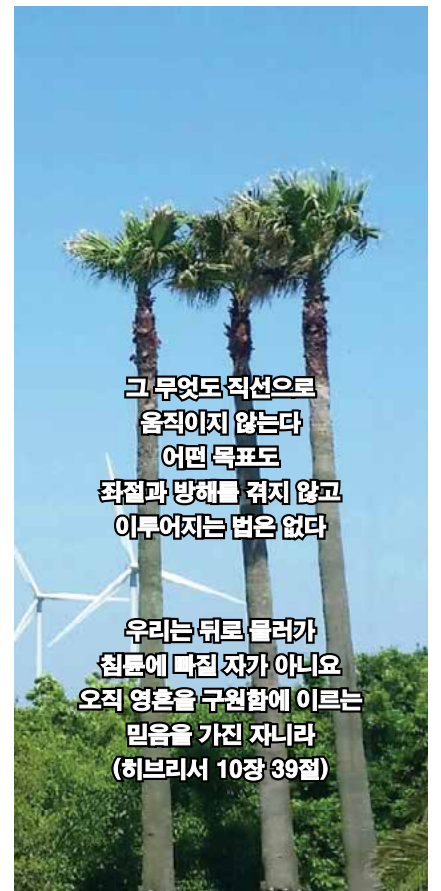
내 지인의 구두를 우연히 볼 일이 있었다. 신발 밑창이 다 헤어졌는데 그 위에다 비닐 장판을 오려 붙여서 신고 다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벅타이 모서리가 다 헤어져 낡았는데도 버리지 않는다. 비오는 날만 아니면, 신발은 발에 맞아 오히려 신기가 편하다며, 갖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을 사다보면 끝도 없다고 정색을 했었다. 궁색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라고 속으로 비웃었다. 그런 지지리 궁상 같은 '티끌모아 태산'이 삶의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회의론을 갖고 그를 지켜보았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지인은 수익 원을 모았다.

지인의 근검절약하던 모습은 이후, 나에게 거울이 되었다. 먹지도 않는 음식이 가득 들어 있던 냉장고가 단출해졌고, 장롱에 가득 들어있던 옷들을 정리하며 필요한 것이 외에는 일체의 지출을 삼가는 절약모드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몇 달 후 통장을 열어보니, 수백만 원의 잔고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절약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그리 오랜 시간이 들지 않아도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한다. 지금부터라도 자녀의 책가방을 정리하고 연필 한 자루, 지우개 하나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어보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데, 어린 시절 절약의 삶이 우리 자녀를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줄 것이라 믿는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그 무엇도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목표도
좌절과 방해를 겪지 않고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묵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